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 |
|---------|---|
| 하나님 앞으로 |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요한복음 11:1-16 최고의 계획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384장 / 나의 갈길 다 가도록 (통일찬송가 434장) |
| 헌신과 나눔 | 봉 헌 / 구은강 집사, 홍현근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 삶과 세상으로 | *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양 예 배

8:00 pm

기도 : 박진성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열왕기하 14:1-22
아마사 : 깨어진 평화

섬김의 교회 찬양 사역

- ▶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 성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최선을 다한 연주와 모든 인격과 정성을 담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찬양에 참여하는 성도가 자신에게 가장 친밀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체험하도록 섬긴다.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찬양 사역자들이 먼저 다듬어지고 세워지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 받은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이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을 위한 열정을 회복하도록 섬긴다.
- ▶ 70/80 세대를 섬기는 찬양사역
동시대를 살아온 형제, 자매들이 모여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함께 나누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섬김의 교회 찬양사역이 시카고 지역의 한인교회와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나눔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한다.
- ▶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찬양사역
섬김의 교회는 교단이나 문화를 뛰어넘어 다른 한인교회들과 찬양사역을 공동/협력사역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섬긴다.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이웃 교회들을 찬양으로 섬기며 더 좋은 찬양 인도자로 함께 다듬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따라서, 섬김의 교회는 찬양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청지기들을 찾아 훈련하며 함께 하나님의 예배한다.
- ▶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린 무대
섬김의 교회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장, Open Sage 로 자리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악기와 공간,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를 지향한다. Open Stage로 Piano, Guitar, Bass, Drum과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만든다.
- ▶ 치유, 회복, 나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을 쉬고 성장하여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받은 은혜를 찬양팀이 예배를 통해 성도에게 은혜로 영향을 끼칠 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고 더욱 큰 섬김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은 대영이여 여호와의 즐거움 찬송을 부를지어라.
 기쁨으로 여호와의 섬김이며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라.”
 (시편 100편 1-2 절)

교회 소개

섬김의 교회는 시카고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교회로서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지향하며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인정하는 교회
 성경적 교회 민주정치를 위해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공동체에 나누는 정의로운 교회
 믿음과 삶에서 성숙하도록 교육하는 교회

이런 목표를 위해 섬김의 교회는 성경이 오늘날의 문화와 가치에 바른 원칙으로 적용되도록 하며 신앙과 구체적 삶이 일치되는 사역을 추구합니다.

함께 사역하는 팀사역을 통해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바로 서도록 달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이런 비전을 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 받으시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으실 때까지 열매를 더 많이 맺으시라.

1.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 교회 Lease 1년 연장/재계약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17주간 성경1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점검해줍니다.
4.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나눕니다.
5. 오늘 오후 5시에 3주년 감사찬양집회를 가집니다. 그동안 준비를 위한 찬양팀의 헌신, 집회를 위한 Relay 기도와 교우들의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 | | | | | |
|--------|---------|-------------|-------------|-------|-------|
| 예배 섬김이 | 주일에배기도 | 9/30 | 10/7 | 10/14 | 10/21 |
| | | 김훈태집사 | 최선운집사 | 구민집사 | 박진성집사 |
| | 금요일예배기도 | 10/5 | 10/12 | 10/19 | 10/26 |
| | | 유동숙집사 | 박진성집사 | 오정은집사 | 유덕하집사 |
| | 주일헌금위원 | 9/30 | 10/7 | 10/14 | 10/21 |
| | | 홍현근집사/구은강집사 | 최내권집사/정줄리권사 | | |
| | 주일안내위원 | 9월 | 10월 | | |
| | | 정줄리권사 | 구민집사 | |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릅니다.** / 요한복음 10:11-18

방향, 후각, 시력과 같은 감각들이 부족하고 날카로운 이빨, 발톱, 뿔, 빠른 발과 같은 뚜렷한 보호기능을 없는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목자의 몫이다. 양과 같은 성도 역시 그렇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방향을 잃고,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을 찾지 못해 굶주리며, 사탄과 세상의 공격에 저참하게 패한다. 예수님은 양을 개별적으로 아시고, 길 잃은 양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며,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하신다.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인도를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대로 순종하도록 다짐하자.

최고의 계획 / 요한복음 11:1-16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에 관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예수님을 맞으며, 이들 자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왜 일부러 지체를 하셨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김의 교회가 준비한 '설립 3주년 감사 찬양집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으로 초청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쉬'는 단순히 육체와 대립되는 영적인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포함한 전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때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세상 노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찬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멜로디가 있는

사랑 고백입니다. 멜로디가 있는 간구입니다. 멜로디가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 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섬김의 교회 예배/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전 존재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 이를 깊이 체험했기에 반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을 다짐하십시오.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감격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이 좋은 것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섬김의 교회가 찬양집회를 준비한 것은 이런 나눔을 위한 작은

몸짓입니다. 오늘과 같은 찬양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비록 소속된 교회가 다를지라도, 한인들이 함께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치유와 회복이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섬기는 목회자 김 성 배 드림

크신 내 주님 Our God / Youth Group

메세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친구의 고백

메세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에 홀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경배하라 주 하나님
주님과 같이

메세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오늘 나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나의 등 뒤에서
우릴 사용하소서
메세지와 마무리

찬양을 위한 헌신

Vocal 구은강 유동숙 최선운 홍현근 / Drum 유덕하 /
Keyboard 김신실 이경례 / Lead Guitar 홍현근 /
Bass Guitar 박진성

Special Thanks to 이경례 선교사 & 안동환 집사. 선교자의 사명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계획 / 요한복음 11:1-16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다니에 삼남매(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와 깊은 친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위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급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된다 하시며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서둘러 오시기만 했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 만난 병자들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서 하물며 그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은 줄도 모르시고, 지체하신 것이니 얼마나 당황 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분명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며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지체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고 계획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강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우리교회 예배팀, 경배와 찬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우리가 '예배하다' 라고 말할 때 생각나는 흔한 이미지는 목사의 설교와 성도의 찬양, 그리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찬양팀일 것이다. 그만큼 '예배'와 '찬양'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흔히 예배의 뜻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영어 'worship'을 생각할 것이다. worship은 worth(가치) + ship(배)의 합성어로 '가장 가치있는 것을 드린다' 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갈 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적용부터, 예배팀이 미리 리허설(연습)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전문적 적용까지 다양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용어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개념상 의미도 알고 적용해야 한다. 개념상 의미는 예배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된다. 흔히 찬양을 중심으로 예배할 때, '경배와 찬양'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사역, 약속, 말씀 등을 노래, 춤, 몸짓 등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때문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동시에, 노래하고 외치고 박수를 치는 등의 적극적인 외적 표현도 있어야 한다.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높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깨우시는 일이 경험되면, 비로소 찬양을 넘어 경배를 드리게 된다. 이 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노래뿐 아니라 기도하거나 침묵하면서 그 말씀하심에 집중하게 된다.

이 두 개념을 예배/찬양팀이 찬양 시간에 적용한다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인 의지로 노래하고 춤을 추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데, 여기서 흔히 '합심기도' 로 이어진다. 이렇게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두 가지 개념이 함께 공존하며 경험되고, 예배/찬양팀은 이 개념을 명심하며 찬양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 백성훈 목사, 『팀사역의 원리』 -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고난을 싫어한다. 고난이 온다면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반대로 고난을 일부러 찾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등반하다가 동료를 잃기도 하고, 동상에 손과 발을 절단하기도 한다. 어느 삶이 더 풍요로울까? 우리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자. 복음은 말한다. "그리스도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히 5:8)."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기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 즉,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이 학교에서는 단 한 가지 과목만 가르친다. 순종이다. 순종을 배우지 못할 때의 부작용이 크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는 자신의 영을 소멸하는 법만 배운다. 곧, 고단한 삶 속에 있는 온갖 낙담, 절망, 분노, 우울 등과 같은 영을 잡아먹는 '구더기들'을 얻게 된다.

이 학교에 입학하여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예로, 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조차 자신이 왜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순종을 배울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영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는구나(욥 17:1)."라고 고백했다. 욥도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욥의 고백처럼 자신의 영을 소멸하는 법만 배운다.

고난의 학교의 특징은 우리를 안으로 향하게 하는 내면의 수업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 수업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디자인돼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가르친다. 하지만 이런 수업의 큰 단점은 많이 배우나 정작 자기 자신은 수수께끼 상태로 있다. 내가 누구인지 이 근본적인 물음에는 답을 못한다. 반면 고난은 사람을 안으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이 수업은 '속사람'의 수업이다. 이 학교에서는 고난이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수업을 참관하는 분이시고, 순종은 요구되는 시험이다. 고난이 밖에서부터 속사람 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수업이 시작되는 데, 문제는 보통 고난이 속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는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지혜는 고난에 대처하는 많은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치료법은 몸을 구원해도 영혼을 죽이는 우울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고난 당하는 자를 격려하는 많은 치료법도 알고 있다.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또한 우리의 정신을 잠깐 활력을 돌게 해도, 영혼을 잡아 먹는 우울한 특징이 있다.

오직 고난 중에 자신의 속사람을 돌아보고 그 속사람이 가르칠 때, 이런 영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주님이 하셨듯이 고난을 통해 기꺼이 배우기 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만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세상과 찢을 떼게 된다. 세상의 사랑하는 일로부터, 세상에 의해 쓰라림을 당하는 일로부터 찢을 떼야 한다. 영원을 위한 배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고난의 학교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을 배우는 '조용한 수업'이다. 오직 단 한 가지 순종만 배우니까, 학생의 관심은 방해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 이창우 목사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EM PASTOR
-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섬김의 교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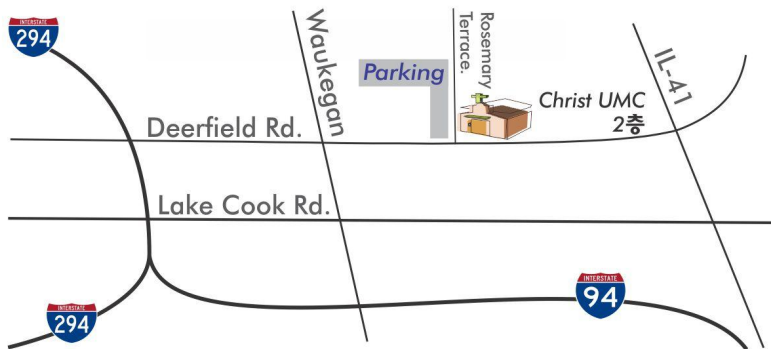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5:40 AM
SATURDAY 6: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October 7, 2018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기유, 회복, 나눔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2018년 10월 7일

4-40호

결실의 달
설립 감사 찬양 예배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지 아니한가 보라

누가복음 11:34~35